

광양시, 초등돌봄 특화서비스 '광양아이 키움밥상' 제공



다음달 28일까지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제공 시니어클럽 어르신들 음식 만들어 광양아이 키움센터에 배달

광양시는 지난달 2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방학기간 동안 학교 밖 초등아동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광양아이 키움 밥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학 기간 맞벌이 가정 부모들의 어린 자녀들에 대한 점심 해결 등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했다. 식단은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광양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받아,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음식을 만들어 광양아이 키움센터에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동시에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모는 걱정없이 직장생활을 가능하게 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광양시의 초등돌봄 특화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밥상이 제공되는 광양아이 키움센터와 돌봄

공동체는 ▲ 광양읍 5개소(송보7차, 덕례수시아, 덕진광양의봄, 창덕1차, 남해오네뜨)와 ▲ 중마동 6개소(농협문화센터, 성호2-1차, 송보5차, 송보6차, 스위트엠, 마동빛), ▲ 광영동 1개소(브라운스톤가야), ▲ 금호동 1개소(금호도서관) 총 13개소로, 약 340여 명의 어린이가 중식을 제공받고 있다.

최숙와 여성가족과장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1년 초등돌봄 조례 개정으로 방학 기간 중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순천시, 경제 모세혈관 중소기업 숨길 연다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용자한도 3억원의 3%, 70여 개 업체 지원

순천시는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짓눌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경기침체를 딛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이하 사업)은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 차액을 보전받는 제도이다.

순천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2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로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해당 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2

년 동안 3%의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융자한도는 최대 3억 원으로, 관내 7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대출심사와 대출실행 등의 업무를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에서 지정한 7개 금융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에 접수하면 적격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국제·지방세 등 체납업체, 지원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

년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관내의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계시판을 확인하거나 순천시청 신성장산업과 기업유치팀(061-749-440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순천시는 정월박람회 이후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와 일자리가 넘쳐나는 역동 경제도시 도약, 순천형 4차산업혁명 추진, 탄소중립 기반 녹색 산업을 육성해 '사람과 기술, 자연을 잇는 미래경제 중심 도시'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제8기 여수시 SNS 서포터즈' 본격 활동 나서

'블로그·유튜브까지'...2.6:1의 경쟁률을 뚫고 25명 선발

'제8기 여수시 SNS 서포터즈'가 16일 오후 제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이 직접 참여해 시민 소통과 지역 홍보에 앞장설 SNS 서포터즈 25명을 위촉했다.

이번 서포터즈는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과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

민들로 구성됐다.

여수시는 특히 최근 SNS 트렌드를 반영한 '블로그, 유튜브'분야를 신설하고 SNS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다수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1년간 시장과 시민의 가교가 되어 여수시정은 물론, 여수의 매력과 숨겨진 이야기, 먹거리 등 생생한 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여수=김현근기자

"명절선물 '보성물'에서 준비하세요"...설 명절 특별할인전



이번 달 27일까지, 최대 20% 할인행사 진행

보성군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1월 27일까지(26일간) 온라인 직거래장터 '보성물'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 할인 기간에는 보성물 전 품목을 10%에서 최대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신규회원은 2,000원 포인트 적립 혜택이 주어지며 상품 후기 작성 시 300원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보성물'에는 125개 업체, 1,000여 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청정자연에서 키운 녹차, 키위, 올리브, 벌교 꼬막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농어가의 정성을 듬

뽀 담은 '보성을 다담다' 2종의 꾸러미 선물 세트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새해를 맞이하여 보성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위촉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는 보성물은 지난해 코로나19 및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42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김석순기자

고흥군, 2023 설맞이 전통시장 손님맞이 준비 착착

고흥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 대비 안전하고 청결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환경정비와 안전점검을 13일부터 4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안길 내부 우수로와 하수도 막힘을 사전에 정비해 악취 발생을 제거하고, 생선구이 환풍기 내부청소 등 시장 주변정비를 통해 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청

결한 시장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흥군은 고흥소방서, 상인회 합동으로 지난 5일 1차 소방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12일에는 2차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군민과 귀성객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